

---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 부지내  
문화재(객사·동헌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2018. 10.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발굴(시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

# - 목 차 -

I . 조사개요 .....	5
II .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	12
1. 자연 · 지리적 환경 .....	12
2. 고고 · 역사적 배경 .....	13
3. 전라우수영의 연혁 .....	18
III . 조사내용 .....	22
1. 조사방법 및 층위 .....	22
1) 조사현황과 방법 .....	22
2) 조사지역의 층위 .....	22
2. 트렌치 조사내용 .....	23
1) 동헌지의 조사내용 .....	24
2) 객사지의 조사내용 .....	31
IV . 조사결과 및 조사단 의견 .....	37
○ 출토유물 현황 .....	39
○ 조사보고서 초록 .....	41

## < 표 차 례 >

표 1. 전라우수영 조사 및 정비 현황 .....	6
표 2. 트렌치 현황과 조사내용 .....	24

## < 도 면 자 례 >

도면 1. 조사지역의 위치(1:25,000) .....	8
도면 2. 조사지역과 주변유적의 분포도(1:5,000) .....	9
도면 3. 조사지역과 전라우수영지(항공사진) .....	10
도면 4. 조사지역과 전라우수영지 조사현황도 .....	11
도면 5. 해남군 행정지도 .....	12
도면 6. 비변사인방안지도(1739년 이후)-전라우수영 .....	19
도면 7. 지방지도-1872년 전라우수영 .....	20
도면 8.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도 .....	25

## < 사 진 자 례 >

사진 1. 동헌지 트렌치 배치와 유구분포도(항공촬영 북↑) .....	26
사진 2. Tr.1의 전경 .....	27
사진 3. Tr.1 내 소성유구(와요지) .....	27
사진 4. Tr.1의 1호 건물지(기단:석축) .....	27
사진 5. Tr.2의 전경 .....	27
사진 6. Tr.3의 전경 .....	27
사진 7. Tr.4의 전경 .....	28
사진 8. Tr.4의 2호 건물지(기단시설:석축)과 1호 석열 전경 .....	29
사진 9. Tr.4의 2호 건물지(기단시설:석축) 세부 전경 .....	29
사진 10. Tr.5의 2호 건물지(기단:석축)과 2·3호 석열 .....	30
사진 11. Tr.5의 전경(북동→) .....	31
사진 12. Tr.5의 2·3호 석열 .....	31
사진 13. Tr.5 내 2호 건물지(기단시설:석축) .....	31
사진 14. Tr.7의 전경 .....	32
사진 15. Tr.10의 전경 .....	32
사진 16. Tr.11의 전경 .....	33
사진 17. Tr.13의 전경 .....	33
사진 18. Tr.15의 전경 .....	34
사진 19. Tr.17의 전경 .....	34
사진 20. 학교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석된 석재 .....	35
사진 21. 학교의 화단이나 주변 가옥의 기단부에 활용되고 있는 치석된 석재 .....	35
사진 22. 舊 우수영 초등학교 교문 진입로 동편에 자리한 우물 전경 .....	35

## I. 조사개요

1. 조 사 명 :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내 유적(객사 및 동헌 추정지)  
(허가 제2018-1068호)

2. 유적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620-1번지 외

### 3. 조사 목적

사적 제535호인 해남 전라우수영의 객사와 동헌지는 고지도에서 보면 성 내 중앙 부에 자리한다. 이곳은 현재 구(舊) 우수영초등학교 부지와 그 북측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해남군은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의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객사와 동헌추정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굴 조사는 객사와 동헌의 건물유적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유적의 성격을 밝혀 향후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사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4. 조사면적 : 8,736㎡

5. 조사기간 : 2018년 9월 05일 - 2018년 9월 21일 (실 조사일수 : 8일)

6. 조사기관 : (재)고대문화재연구원

7. 사업시행기관 : 해남군

### 8. 조사단 구성

- 단 장 : 김 승 근 (고대문화재연구원장)
- 책임 조사원 : 김 승 근 (고대문화재연구원장)
- 조 사 원 : 윤 정 국 (고대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준 조 사 원 : 이 승 현 (고대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보 조 원 : 민 혜 영 (고대문화재연구원 연구원)

### 9. 해남 전라우수영 조사경위 및 경과

해남 전라우수영은 조선시대 수영성 중 가장 규모가 큰 수군진성으로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이다. 앞바다는 명량(鳴梁) 또는 울돌목이라는 매우 좁은 해협으로 조류가 빠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우수영 앞으로 양도(羊島)가 있어 울돌목의 거친 물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쪽으로 약 5km 떨어져 목이 좁아지는 곳이 원문(轅門)성을 축조하여 육지로부터 침입을 막았던 회소성이 뛰어난 유적이다. 이러한 가치성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기념물 제139호(1992년)에서 2016년 9월 30일에 사적 제535호로 승격 지정되었다.

<표 1> 전라우수영 조사 및 정비 현황

년도	조사연구기관	주요성과
2001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해남 전라우수영 지표조사 -성곽 및 성곽시설 조사, -성내 근대가옥 등 조사
2003	진강건설	전라우수영 보수정비공사 -성곽 27.5m
2004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전라우수영 망해루지 및 북문지 발굴조사 -망해루지 : 기단석렬, 정면3칸, 측면2칸 건물지 유구 -북문지 : 도로 구성에 따른 교란으로 확인 못함 -성곽 트렌치(3개소) : 편축식 성곽, 외황 등 유구 확인
2008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보물 제503호 명량대첩비 이전검토 및 정비계획 -명량대첩비 이전계획안 제시
2009	비전건설(주)	망해루 복원공사/단청공사
2010	금광기업	명량대첩비 원설립지 이전정비공사
2014	송도건설	총무사 건립 -사당, 동/서무, 외삼문, 화장실, 협문, 안내판 등
2017	마한문화연구원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긴급발굴조사 -북서쪽 구간 통행로에서 성벽 유구 확인
2018	한울문화재연구원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영창터, 동벽(북문지~총무사), 북벽 치 유구 확인
2018	고대문화재연구원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동헌 및 객사추정지) 시굴조사 : - 동헌 및 내아터 유구 확인

해남 전라우수영에 대한 조사는 2001년 성곽과 성내부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망해루지와 북문지 등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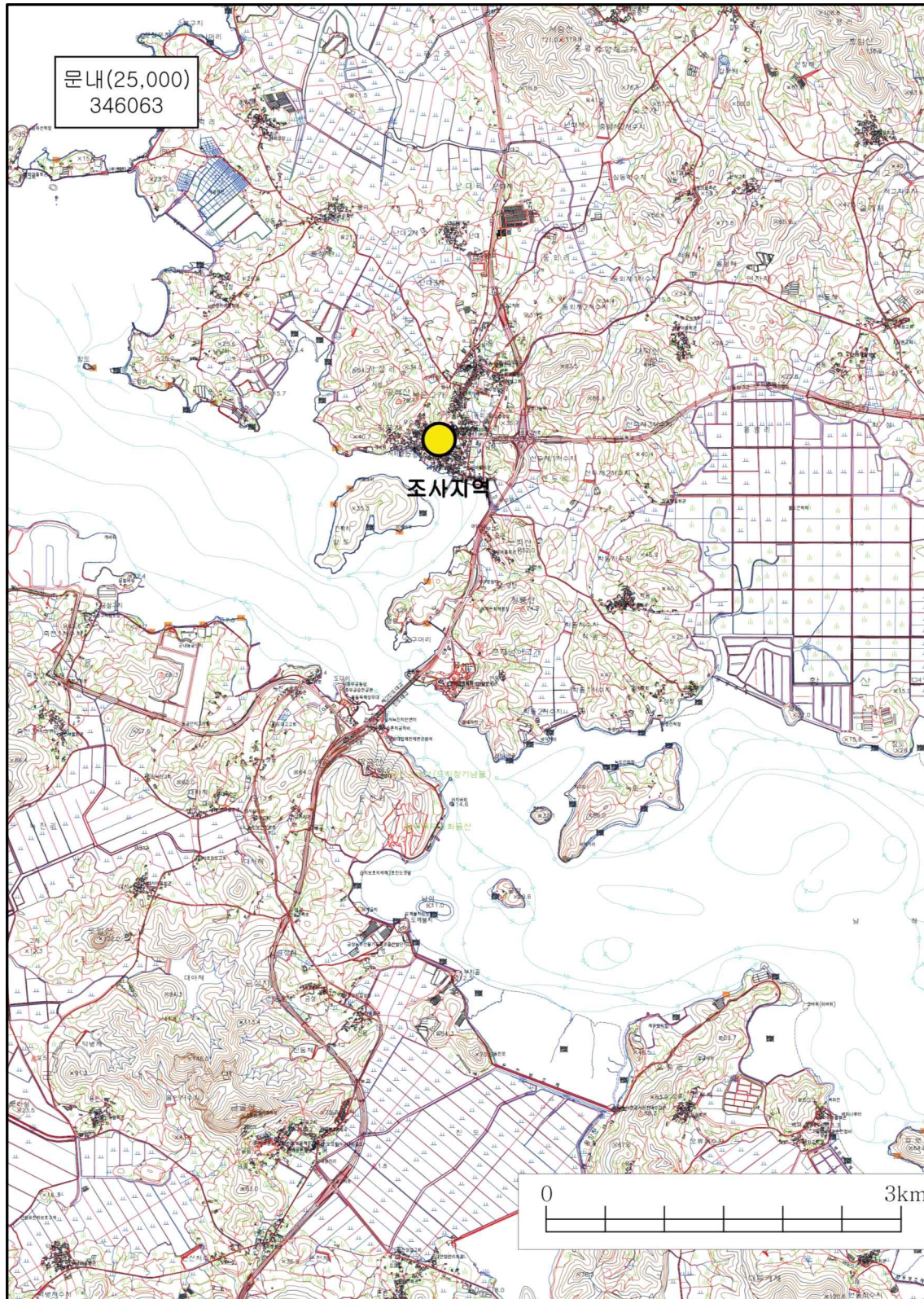
어져 2009년 망해루를 복원하였다. 이후 2017년 망해루 서측 성벽이 훼손되어 긴급 수습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2018년 전라우수영성의 망해루 ~ 서문지 성벽구간(1지역)과 북문지 ~ 동문지 성벽구간(2지역), 영창 추정지역(3지역) 3곳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성벽 관련 유구와 건물 관련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번 시굴조사는 전라우수영성의 동헌 및 객사로 추정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로 조사 면적은 8,736㎡이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제2018-1068호)를 받아 2018년 9월 5일부터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 10. 보고서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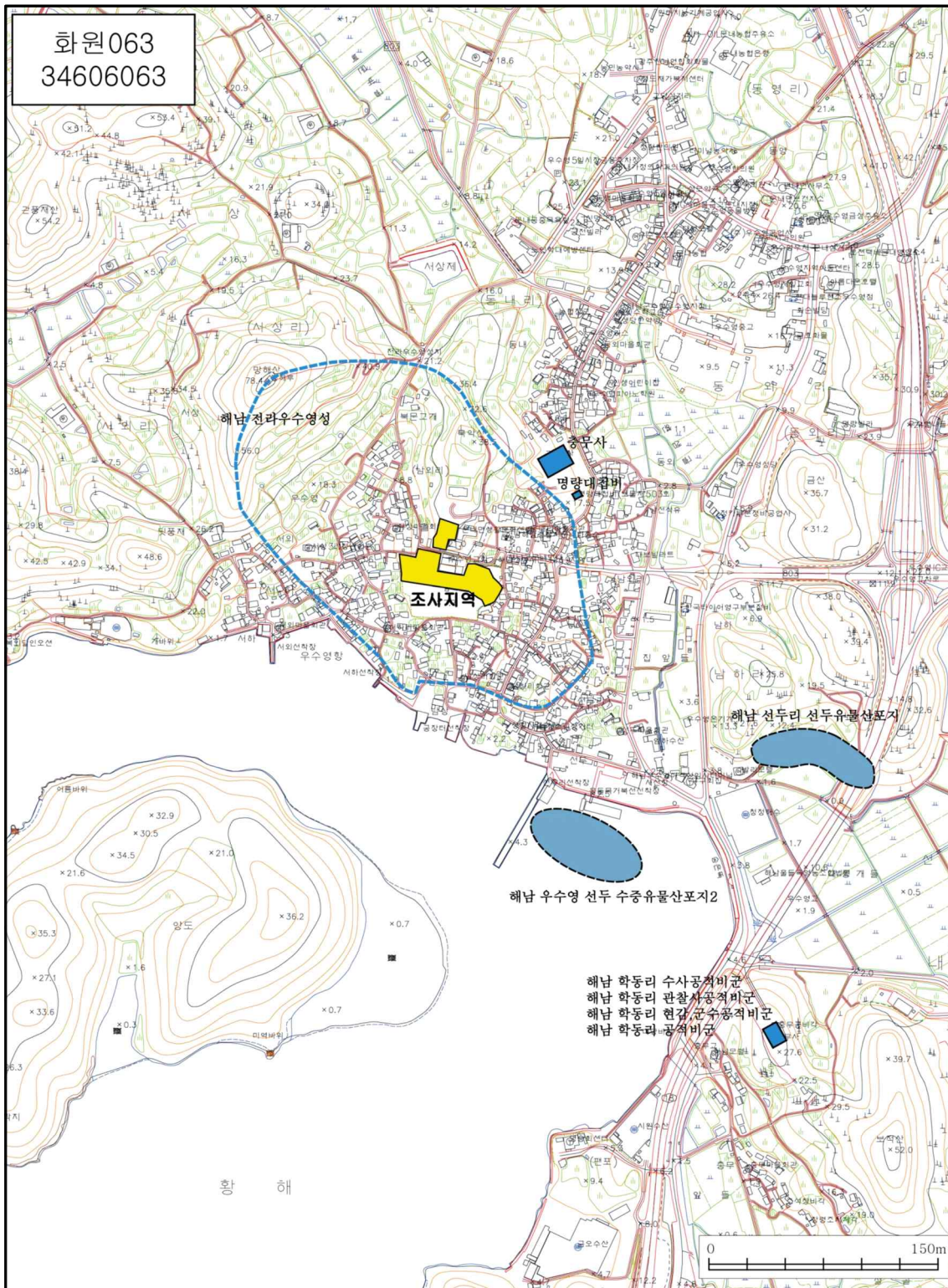
보고서는 조사결과를 세심하게 종합정리하였다. 약식보고서의 구성은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주변환경, 조사내용, 조사단의견 등을 정리한 조사결과로 작성하였다. 원고의 작성은 조사완료후 자문위원회의를 토대로 이승현이 초고를 작성하였고, 김승근과 윤정국이 수정하였다. 한편 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남도현(고대문화재연구원 소속) 등의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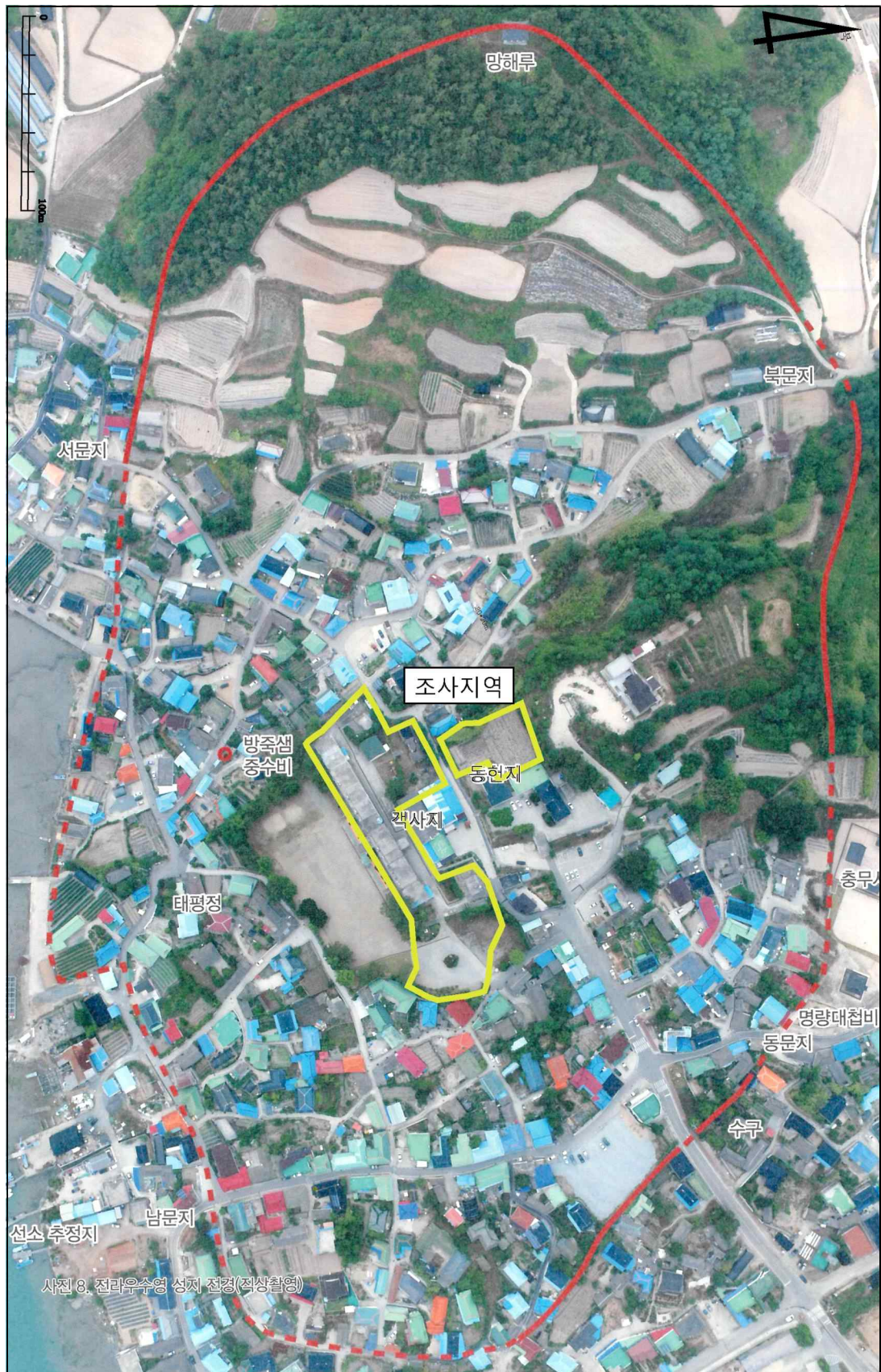
도면 1. 조사지역의 위치(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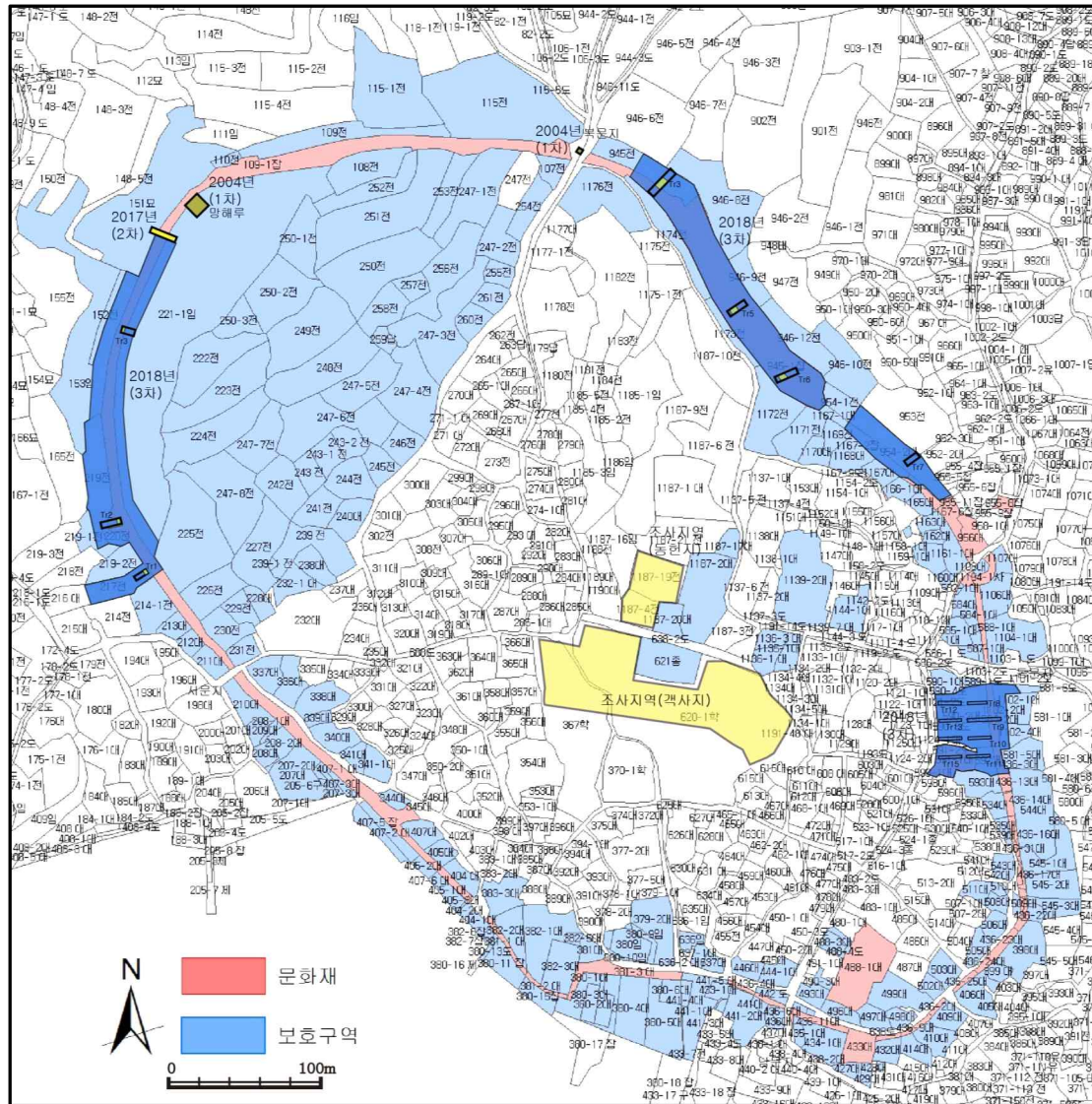
도면 2. 조사지역과 주변유적의 분포도(1:5,000)





도면 3. 조사지역과 전라우수영지(항공사진)





도면 4. 조사지역과 전라우수영지 조사현황도

## II.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 1. 자연·지리적 환경<sup>1)</sup>

조사지역인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 부지내 유적(객사 및 동헌추정지)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62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서남단 모서리에 위치한 전남 최대의 군으로 동쪽은 강진군, 북쪽은 영암군과 목포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남동쪽으로 완도군, 남서쪽으로는 진도군, 서쪽으로는 신안군과 각각 접하고 있다. 동서간 거리가 44.2km, 남북간 거리가 54.8km에 이른다. 수리적으로는 북위 34° 17' 32"~ 34° 45' 10", 동경 126° 16' 10"~ 126° 44' 10" 사이에 위치한다.



도면 5. 해남군 행정지도

해남의 동단은 북일면 내동리(동경 126° 44' 10", 북위 34° 27' 10")이고 서단은 화원면 화봉리(동경 126° 16' 10", 북위 34° 39' 20"), 남단은 송지면 갈두리(동경 126° 31' 29", 북위 34° 17' 32"), 북단은 화원면 매월리(동경 126° 17' 20", 북위 34° 45' 10")이다.

옛 부터 영산강 유역의 문화 요소들이 파급되거나 형성되는 배경으로 혹은 반도의 중심세력이 전파되는 막다른 길목으로서 더욱 크게는 서남부를 경유하는 해로가 중국 - 한반도 - 일본을 연결한 문화이동로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적 성격을 지닌 곳이다.

해남군의 면적은 1,013.20km<sup>2</sup>으로 전라남도 전체 시·군 중 면적이 가장 넓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 514개 행정리, 177개 법정리, 366개의 반, 564개 자연마을로 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되어 있다. 인구는 35,200 세대에 74,558인이며, 군청 소재지는 해남읍 군청길 4이다.(2017년 3월 현재)<sup>2)</sup>

해남군은 산이, 화원, 해남의 3대 반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백산맥의 지맥이 해남반도 끝까지 이어지면서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산으로는 대둔산(672m), 흑석산(659m), 금강산(481m), 달마산(489m), 두륜산(703m)등이 있고 해남군의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 양식장, 염전 등이 이어진다. 하천은 지표경사가 급하여 큰 하천이 없으며, 해남천, 삼산천을 비롯하여 준용하천 29개소, 530여개의 소하천이 있다.

해안선은 육지부 225.80km, 도서부 76.60km 등 총연장 302.40km에 이르며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에는 그 굴곡마다 간척지가 있고 김양식장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화원반도, 산이반도가 영암군과 잇는 영산강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간척지가 형성되어 있다. 도서는 유인도 7개, 무인도 58개 등 총 65개로 이루어져 있다(2015년 현재). 진도와 화원반도 사이에는 급한 조류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격전지로 유명한 명량해협이 있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로 온화하며 농업과 어업에 알맞다. 또한, 황해 동부해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기후 중 따뜻한 편으로 대륙성 기후의 영향도 받고 있다. 평균 기온은 13.7℃, 평균최고는 19.0℃, 극값최고는 33.6℃, 평균최저는 8.7℃, 극값최저는 -13.0℃이며, 강수량은 1,173.1mm, 평균 상대습도는 73%, 바람의 평균풍속은 2.1(m/sec)이다(2014년 기준)<sup>3)</sup>. 지질은 화강암, 변성화강암, 분암, 응화암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고고·역사적 배경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서남해안의 가장자리에 위치함으로써 고대로부터 한반도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이 교차되는 곳으로 해로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인 환경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주목되고 있다.

해남지역의 선사·고대유적에 대한 목록은 1975년<sup>4)</sup>과 1977년<sup>5)</sup>에 각각 작성된 바 있으나, 본격적인 종합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2) 해남군청([www.haenam.go.kr/](http://www.haenam.go.kr/))

3) 주1)의 전거서.

4) 최몽룡, 1975, 『전남고고학지명표』, 전남매일신문사출판국.

5)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전라남도』.

서이다<sup>6)</sup>. 이후에도 해남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표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져 새로운 유적들이 추가·보완되었으며<sup>7)</sup>, 또한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해남군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을 위한 지표조사에서 새로운 유적이 다수 조사되었다<sup>8)</sup>.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산이면 대진리 월산에서 석영제 찰개, 덕송리 덕곡에서 굽개·격지, 덕송리 황조에서 몸돌·소형찰개, 구성리 구성에서는 몸돌이 채집되었다. 그리고 문내면 충평리 신평에서는 굽개, 화원면 성산리 척북에서는 여러면석기·석창편·몸돌, 성산리 방죽골에서는 몸돌이 채집되었다<sup>9)</sup>. 이는 해남지역의 역사가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인 현산면 백포리 두모 貝塚에서는 굴껍질로 이루어진 貝殼層에서 즐문토기편이 채집되었다<sup>10)</sup>.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석묘와 주거지로 구분되는데 지석묘는 88개군 860여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는 화산면·현산면 일대, 산이면·마산면 일대, 계곡면·옥천면 일대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호동리, 고현리, 장소리·선진리, 분토리 지

6)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7) 성낙준·신상호,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최성락·정영희, 1997, 「고고학적 지표조사보고」, 『화원관광단지조성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김경철, 1997, 「해남 영호리유적과 출토유물」, 『박물관연보』 제6호,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1998, 「현산-해남간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해남고현리 지석묘』.

최성락·고용규, 1999, 「고고·관방유적」, 『문내-황산-해남간 국도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이현종·호용수, 2001, 「남창-삼산간 국도 확·포장공사지역의 고고유적」, 『남창-삼산간 국도확포장공사구간 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은화수·최상종, 2001, 「해남 북일면일대 지표조사보고」,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 보고』, 국립광주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영산강 금호1-1공구·마산2공구 내부개답공사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이영철·이은정, 2002, 「전남 해남 출토 신자료 보고」, 『호남고고학보』 15, 호남고고학회.

정영희·최미숙, 2002, 「해남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적·유물」, 『박물관연보』 11, 목포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영산강 산이2-1공구·금호1-2공구 내부개답공사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송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영산강 산이2-2공구·금호2-1공구 내부개답공사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화원-삼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2006, 「옥천 대산지구 발기반정비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화원지구 대구환경지정리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정영희·김병수·박영훈, 2006, 「문내 무고지구 발기반정비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화원지구 대구환경지정리사업지역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8)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전남 해남군』.

9)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 분포지도-전남 해남군-』.

10)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7, 「해남 백포만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석묘가 발굴 조사되었다. 호동리에서는 하부구조가 파괴되어 積石構造 일부만 확인된 지석묘 1기와 주변지역에서 石斧 1점이 채집되었다<sup>11)</sup>. 고현리에서는 상석 1기와 하부구조 2기가 조사되었으며 출토된 유물은 없다<sup>12)</sup>. 장소리에서는 지석묘 1기가 조사되어 무문토기편, 석촉, 석도가 출토되었고, 선진리에서는 상석 3기가 조사되었으나 출토된 유물은 없다<sup>13)</sup>. 분토리에서는 지석묘 1기와 석곽 5기가 조사되었다<sup>14)</sup>.

주거지는 남창-삼산간 국도확장공사 구간인 현산면 분토리에서 13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松菊里型으로 평면형태는 方形과 圓形으로 구분되며, 무문토기편·방추차·석촉·석부 등이 출토되었다<sup>15)</sup>.

원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인 패총은 군곡리와 옥녀봉에서 조사되었다. 군곡리패총에서는 패각층과 함께 주거지와 토기요지도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다량의 토기, 골각기, 석기, 철기, 중국 신나라 때 화폐인 貨泉 등이 출토되었다<sup>16)</sup>. 토기요지는 적황색 석비레층을 파고 만든 칸이 없는 지하식 登窯이다. 옥녀봉패총에서는 대웅토기편, 적갈색연질토기편, 타날문토기편이 채집되었으며, 주변에는 옥녀봉 토성이 있다. 옥녀봉 토성은 해발 200m 내외의 정상에 있는 테외식과 포곡식이 혼합된 복합식 토성으로 고대 산성지로 추정되고 있다<sup>17)</sup>. 주거지는 해남 신금과 분토리에서 발굴 조사되었다. 신금유적은 3~5세기대로 주거지 72기, 수혈 19기, 구 9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수혈식이며,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이다. 주거지 내부에서 기둥배치, 벽구시설, 벽체, 부뚜막시설 등이 조사되었다<sup>18)</sup>. 분토리 유적에서는 주거지 19기, 수혈 4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벽구시설, 주공, 화덕자리 등이 확인되었으며 외부시설은 배수구가 조사되었다<sup>19)</sup>.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고분과 주거지가 있다. 이 중 고분은 석관묘, 석곽묘, 옹관묘, 석실묘, 圓墳과 長鼓墳(전방후원형분), 방대형고분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삼산면과 북일면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원분은 만의총<sup>20)</sup>을 포함하여 월송리 조산고분과 용일리 용운고분 등이 해당되고, 장고분은 방산리 장고봉고

11) 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해남 호동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12) 목포대학교박물관, 1998, 『해남 고현리 지석묘』.

13) 목포대학교박물관, 2000, 「해남 장소리·선진리유적」,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

14)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I.

15)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I.

16)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1988·1989, 『해남 군곡리 패총』 I·II·III.

17)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1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신금유적』.

19)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I.

20) 동신대학교박물관, 2007, 『해남 옥천 성산 만의총 시굴조사보고서』.



분과 용두리고분 등이 있고 신월리고분은 방대형고분에 해당된다.

분토리에서 발견된 석곽묘는 5기가 조사되었으며, 4호분은 주매장시설로 1기가 확인되었는데, 구릉의 북쪽 사면부에 수 개의 판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이중으로 덧대어 축조하였다. 분구의 성토층을 굴착하여 축조하여 조사 시에 벽석들이 내부로 쏠려있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수혈식의 구조로 판단된다<sup>21)</sup>. 또한 웅관묘 11기가 조사되었는데 단독으로 확인된 4기 이외에는 주 매장시설을 토광묘로 하는 고분의 추가묘의 성격으로 안치된 것들로 토광묘와 동일한 분구 내에 공존한다. 묘광은 웅관의 합구 형태에 맞게 장타원형의 묘광을 굴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고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을 기준으로 평행하는 경우와 직교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동-서 방향 5기와 남-북 방향 6기로 장축방향의 선호와 관련한 우위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심매장시설의 장축방향 또는 주구의 장축방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습조사가 이루어진 월송리 조산고분<sup>22)</sup>은 평석천정의 맞조림식에 해당하며, 연도가 서향이고 석실이 지상식이다. 유물은 백제 토기를 비롯하여 마구류·무기류·장신구 등 196점이 출토되었다. 고분의 축조연대는 6세기 초로 비정하고 있다. 한편 삼산면 원진리 농암마을에서 2개소, 봉학리 신금마을에서 1개소의 웅관고분이 수습조사되었다<sup>23)</sup>. 이들 웅관유구는 분구가 크지 않은 소형분으로 웅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농암B고분이나 신금고분의 웅관은 전용웅관으로 대웅의 저부에 원공을 뚫고 있다. 특히 이 전용웅은 거치문이 생략된 채 구연부까지 격자문이 타날되고 기벽의 두께가 구연부에서 저부까지 차이 없이 고르다. 유물은 컵형토기, 유리소옥, 철정, 철부, 환두대도, 소호, 원저호,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구들은 4세기 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평면형태가 장고형인 방산리 장고봉고분은 분구 길이 76m, 높이 10m로 시굴조사를 통해 원형부 서쪽에서 횡혈식석실 1기를 확인하였다. 석실은 지상식이며, 玄室은 평면 長方形의 양벽조임식이고 그 내부는 붉은 안료를 칠하였다<sup>24)</sup>. 용두리고분은 발굴조사를 통해 원형부 중앙에서 횡혈식석실 1기를 확인하였다. 석실은 지상식이며 현실은 평면 장방형의 양벽조임식이다. 석실 내부에서는 鉢形器臺, 蓋杯片, 철촉, 화살통꾸미개,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sup>25)</sup>.

21)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1·II.

22) 국립광주박물관, 1985,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23) 국립광주박물관, 1989, 「해남 원진리 웅관묘」, 『영암 와우리 웅관묘』.

24) 국립광주박물관, 2001,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보고서』.

25) 국립광주박물관, 2011, 『해남 용두리고분』.

2008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옥천면 만의총 1호분과 3호분이 발굴 조사되었다. 1호분은 5세기 후반~6세기 초기 삼국시대 고분으로 조성된 후, 정유재란 당시 희생된 순절의병을 재차 매장한 복합유적이다. 또한 3호분은 조사를 통하여 대형 봉분 속에 横口式石室이 축조된 무덤 자료를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횡구식석실분의 구조와 葬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sup>26)</sup>. 축조연대는 출토된 개배와 단경호 등으로 보아 5세기 늦어도 5세기 후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2009년 발굴 조사된 신월리 방대형고분<sup>27)</sup>은 최근까지 해남반도 일원에서 조사된 고분과 달리 분구조성방법과 매장시설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구전면에 증석시설을 한 점과, 매장시설 축조 시 대형판석재를 사용한 점이다. 이는 조산고분(횡혈식석실), 장고봉고분(횡혈식석실), 용운고분(2호 수혈식석실, 3호 횡구식석실), 용두리고분(횡혈식석실), 만의총고분(지상식 석곽) 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진 외도고분의 매장시설이 대형판석을 사용하여 석실을 축조하고 있어 상호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선사·고대유적 외에도 화원면과 산이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 청자가마터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sup>28)</sup>. 이 가운데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산이면 진산리 청자요지가 있다<sup>29)</sup>. 발굴결과 청자 요지 1기를 확인하였는데, 굴뚝부에서 봉통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전한 형태이다. 가마의 방향은 거의 동-서이며, 굴뚝부를 동쪽에 두고 있는 登窯이다. 가마의 총 길이는 24.5m이며, 벽 너비 120~130cm, 바닥 너비 100~120cm이다. 유물은 총 760여 점이 출토되었으며 접시류와 대접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마가 만들어진 시기는 11세기 전반 경으로 비정하고 있다.

또한 백야리에서는 조선중기에 운영된 옹기가마 1기와 공방지, 그리고 조선후기에 운영된 기와가마 1기가 조사되었으며, 오시골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운영된 도기가마 2기가 조사되었다.<sup>30)</sup>

백야리 가마터에서 조사된 2기의 가마 중 1호가마는 생토인 풍화암반층을 파고 축조한 반지하식의 등요이다. 가마 내부 함몰층에서 옹기와 도침이 출토되어 옹기를 번조하였던 가마로 판명되었다. 가마바닥과 가마벽을 1차례에 걸쳐 보수하여 사

26) 국립광주박물관, 2009, 『해남 만의총 3호분』.

27) 목포대학교박물관, 2010, 『해남 신월리 방대형고분』.

28)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해남의 청자요지』.

29) 목포대학교박물관, 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30)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 백야리 요지』.

용하였다. 유물은 도침과 옹기편, 백자발 등이 출토되었으며 운영시기는 17~18세기경으로 판단되며, 조선전기 옹기가마인 청도 순지리와 나주 우산리 옹기가마와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조선전기 옹기제작 전통이 조선중기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시골에서 조사된 가마는 2기 모두 생토면과 기반암 위에 점토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1호가마는 가마 개축 시 석재를 가마내부에 보강하여 재조성하였다. 2기 모두 소성실의 아래쪽으로는 넓게 재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은 연질과 경질의 호·완·뚜껑·기와류 등이며 영암 구림리, 공주 가교리 유적 출토 유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가마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까지 해남군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유적들이 선사시대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된 것은 남해로 진입하는 영산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하며 농업과 어업을 겸한 지역으로 바다와 넓은 평야에서 풍부한 식량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어서 일찍부터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위치를 마련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시대에 들어서면 해남군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에 복속되어 새금현·고서이현·황술현이 설치되었고, 삼국이 통일된 이후 경덕왕 16년(757)에 침명·고안·황원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태종 23년(940)에는 침명현을 해남현으로, 고안현을 죽산현으로 개칭하여 영암군의 임내지로 되었으나 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 조선 태종 9년(1409)에 진도와 해남을 합하여 해진군으로 편제되었다가 세종 19년(1437)에 진도와 해남을 분리하여 해남현을 복설하였다. 1896년에는 나주부 해남군이 되었고, 부근의 도서지역을 분리하여 완도군으로 이속시켰다.

1914년에는 해남군의 인접지역을 재편하여 13개면으로 편성하였다. 1955년 해남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1읍 12면으로 편제되었다가 1983년 북일면이 북평면으로 분리되면서 1읍 13면, 177개 법정리, 513개의 행정리로 행정구역이 이루어졌다.

### 3. 전라우수영의 연혁<sup>31)</sup>

전라우수영은 1377년(禡王 3) 옥구에 수군처치사영(水軍處置使營)이 설치된 뒤, 1408년(太宗 8) 무안 대굴포, 1432년(世宗 14) 목포를 거쳐 1440년(世宗 22)에 현

3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 I -전라우수영편』.

재 위치인 해남 황원곶에 이설되었다. 이어 1465년(世祖 11)에 전라우군절도사영(全羅水軍節度使營)으로 개편되었다. 1479년(成宗 10)에 순천 내례포(현 여수 일원)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설치된 후부터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약칭 전라우수영)이라 칭하였다.



도면 6. 비변사인방안지도(1739년 이후)-전라우수영

전라우수영의 연혁 및 성내 주요 시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우수영의 연혁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게 나타나며 전라우수영성의 주요 성곽 시설물 및 그 연혁은 『전라우수영지』와 『해남군읍지』(1924)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들 문헌을 바탕으로 전라우수영의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377년(禡王 3) : 옥구(沃溝)에 수영 설치 - 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부근
- 1408년(太宗 8) : 대굴포(大堀浦)에 수군처치사영(水軍處置使營) 설치 - 현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
- 1432년(世宗 14) : 목포(木浦)에 수군처치사영 설치 - 현 목포시 하당 부근으로 추정
- 1440년(世宗 22) : 황원곶(黃原串)에 수군처치사영 설치 - 현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 1644년(仁祖22) : 절도사 남두병(南斗炳)이 남루(南樓)와 격량고(格糧庫) 창건
- 1664년(顯宗 5) : 절도사 전동흙(全東屹)이 객사 중창(重創)
- 1665년(顯宗 6) : 절도사 유비연(柳斐然)이 망해루(望海樓) 건립
- 1669년(顯宗10) : 절도사 이간(李旰)이 남장대(南將臺=靜海樓)와 제언(堤堰) 영건(營建)
- 1688년(肅宗14) : 통제사 이충무공 명량대첩비 건립
- 1895년(高宗32) : 칙령 제140호에 의해 폐영
- 1923년(해남군지) : 충무공 비각 중수(重修)
- 1924년(해남군지) : 어사[御使(東軒)], 객사(客舍), 영창(營倉), 작청(作廳), 성곽(城郭), 충무공비각(忠武公碑閣), 제언(堤堰), 정곶사(鼎串寺), 태평정(太平亭), 망해루(望海樓) 건물 등이 잔존. 군기고(軍器庫), 남장대(南將臺), 사대문(四大門)이 없어짐.
- 1947년 : 통제사 충무공 명량대첩비 경북궁에서 문내면 학동리 1186-7번지로 이설(移設)

### Ⅲ. 조사내용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620-1번지 일원이다. 이곳은 현재 舊 우수영초등학교 부지 및 북측 경작지 일대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낮아지는 망해산(해발 78.4m)과 북망산(해발 38.8m)에서 기원한 능선이 경사를 이루며 전라우수영 일대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시굴 조사지역의 경우 해남 우수영성의 중심부로 능선 사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해발이 높은 지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사지역은 앞바다에 위치한 양도와 바다를 조망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다.

#### 1. 조사방법 및 총위

##### 1) 조사현황과 방법

시굴 조사지역은 공간상으로 두 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동헌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舊 면사무소 부지의 서쪽에 위치한 경작지이고, 다른 하나는 객사지로 추정되는 舊 우수영초등학교 부지이다.

시굴조사는 장기적인 발굴계획을 위해 북동-남서방향으로 내려오는 구릉의 등고선과 직교하게 기준선을 마련하고 전체부지를 20×20m 규모의 그리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그리드에서 조사여건이 마련된 곳을 선정하고 트렌치를 배치하였다. 트렌치는 동헌지에서부터 시작하여 舊 우수영초등학교 순으로 배치하였다. 동헌지의 트렌치는 등고선과 직교하게 5개의 트렌치를 배치하였고, 舊 우수영초등학교 지역은 기존 학교 본관 등의 건물사이의 공간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사여건이 마련된 곳에 트렌치 12개를 크기와 방향을 조정하여 배치하였다. 조사의 깊이는 유구가 확인되는 면까지 하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만약 유구가 확인되지 않을시에는 부분적으로 자연층까지 하강하여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총위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총위(퇴적양상), 성격, 규모 및 조성방법 그리고 유물의 분포 상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고 기록하고자 하였다.

##### 2) 조사지역의 총위

조사지역의 총위는 후대의 교란으로 인하여 지엽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



다. 최근까지도 주택과 학교, 면사무소 등으로 활용되면서 지속적으로 삭평되거나 재퇴적되는 등 인위적 교란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동헌지와 객사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헌지(내아지 포함)는 현재 문내면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舊면사무소 자리 서쪽에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구릉 상부에서는 표토층 아래 암반풍화토가 곧바로 노출되었지만, 구릉의 중단에서 남서쪽 하단으로 갈수록 구릉 경사면이 확인되면서 퇴적이 두터워진다. 하지만 경작행위, 굴삭기 등을 통한 개간으로 인하여 삭평되거나 복토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다행히 일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동헌(또는 내아)와 관련되는 건물지가 확인된다. 동헌지의 퇴적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Tr.1를 기준층위로 삼을 수 있다. 층위는 표토층(경작층), 암갈색사질점토층(교란층), 흑갈색사질점토층(문화층), 암반쇄설층 순이다. 이중 흑갈색사질점토층은 문화층으로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된다.

객사지는 현재 舊우수영초등학교 부지에 해당한다. 조사는 본관 뒤편의 공터와 관사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굴조사 결과 학교가 들어서면서 시설물 건립 등에 의해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그래서 층위는 표토층 아래 곧바로 암반풍화토가 확인되거나 또는 표토층, 복토층(교란층), 암반풍화토(기반토)가 순이다. 토층으로 보아 객사추정지는 대부분 원지형이 훼손되었다.

## 2. 트렌치 조사내용

시굴조사는 동헌지 및 객사지 2개 지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동헌지는 5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객사지는 12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번호는 조사지역의 상부인 동헌지에서부터 서에서 동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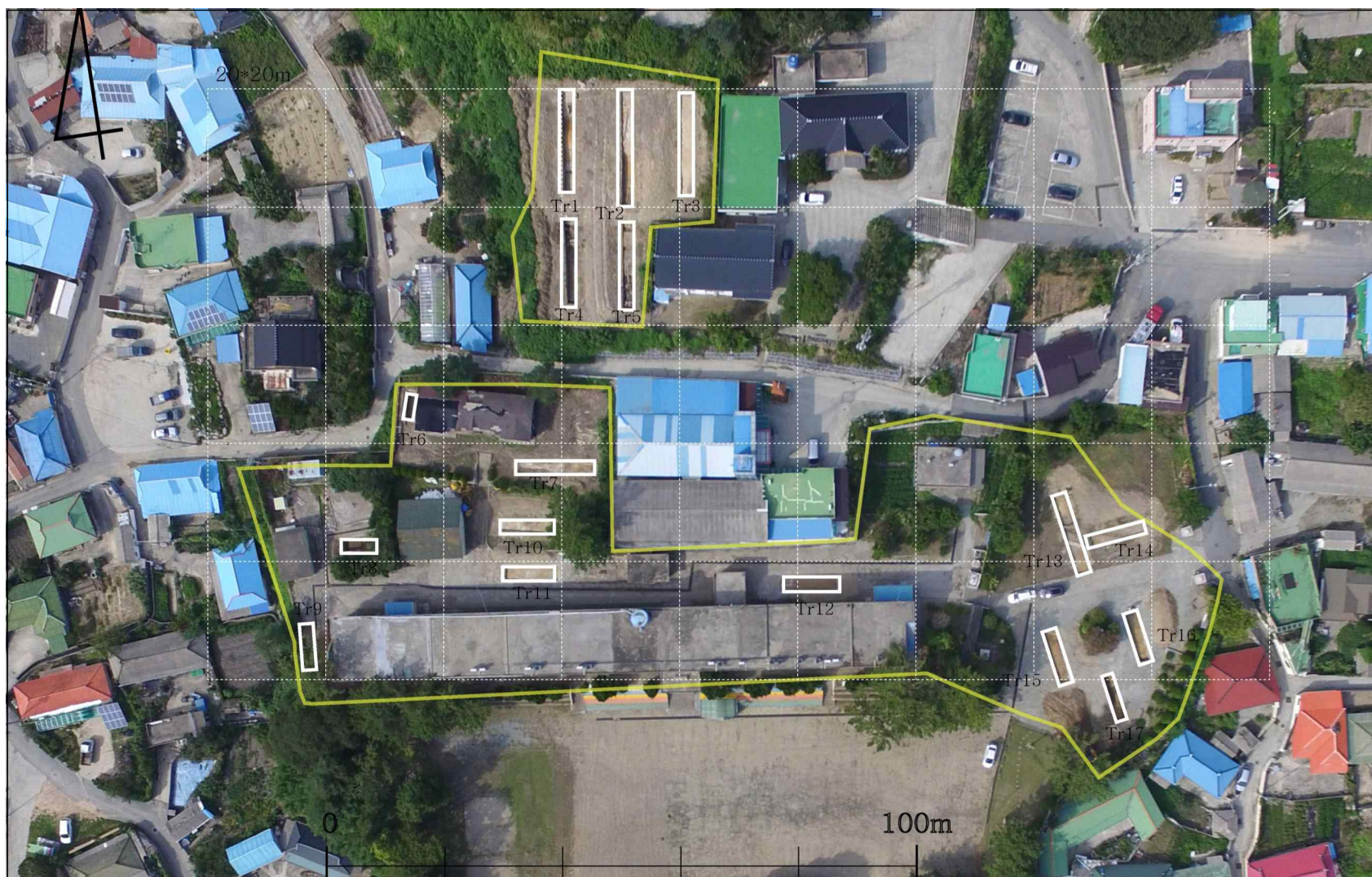
시굴조사 결과 동헌 추정지역에 설치한 5개의 트렌치 중 3개의 트렌치에서 건물과 관련된 건물지(기단시설-석축, 석렬)와 소결부가 있는 소성유구(와요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객사 추정지에서는 트렌치 12개를 배치하여 조사하였으나 표토에서 기와편, 자기편이 확인되었으나 객사와 관련된 건물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도 토층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시설물 설치 등의 요인에 의해 원지형이 훼손되면서 건물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트렌치 현황과 조사내용

	방향	규모(cm)	조사내용	비고
Tr.1	북-남	200×1800×150	소성유구(와요지), 1호 건물지(기단:석축)	동헌지
Tr.2	동-서	200×1800×100	유구 미확인	동헌지
Tr.3	북동-남서	200×1800×35	유구 미확인	동헌지
Tr.4	북동-남서	200×1400×150	2호 건물지(기단:석축), 1호 석열.	동헌지
Tr.5	북동-남서	200×1400×85	2호 건물지(기단:석축), 2·3호 석열	동헌지
Tr.6	동-서	200×500×10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7	동-서	250×1500×2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8	동-서	200×1000×7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9	북동-남서	250×1800×21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0	동-서	250×1000×4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1	동-서	250×1000×4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2	동-서	250×1000×2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3	남-북	250×1800×6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4	동-서	250×1200×6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5	남-북	250×1000×9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6	남-북	250×1000×140	유구 미확인	객사지
Tr.17	남-북	250×1000×100	유구 미확인	객사지

### 1) 동헌지의 조사내용

동헌지는 5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트렌치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8. 조사지역 트렌치 배치도



### (1) 트렌치 1(Tr.1)

트렌치는 동헌추정지 북단 서쪽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18m이며, 깊이는 150cm이다. 경작층인 표토층을 제토하자 기와편, 자기편, 잡석, 비닐들이 혼재한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경작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를 평탄화하기 위한 굴삭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란층 중에는 소결토가 혼입되어 있다. 트렌치 상부에는 소성유구가 확인되는데 평탄화과정 중에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의 일부가 불에 의해 단단하게 다져있고, 다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없지만 건물지와 관련되 와요지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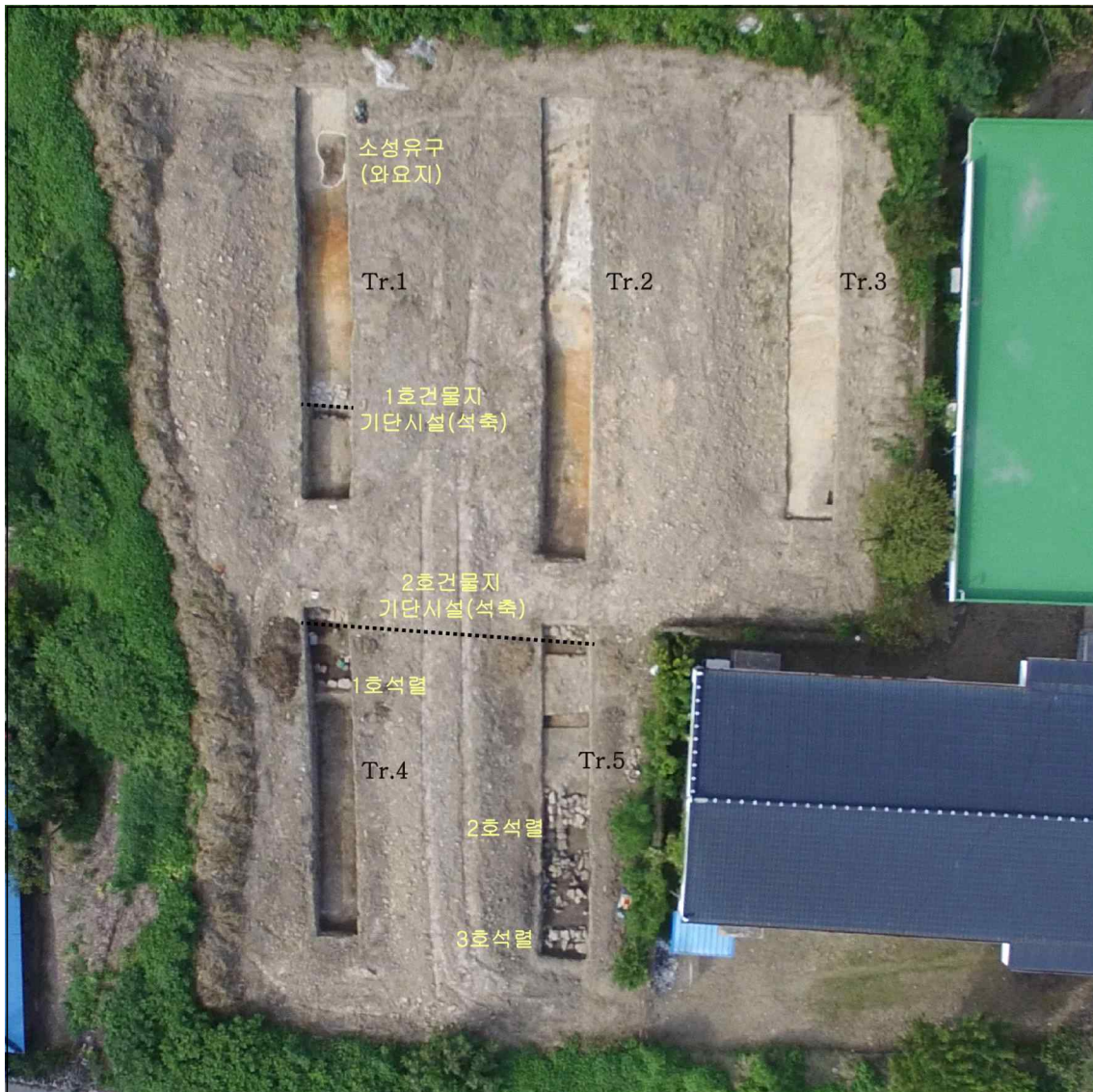


사진 1. 동헌지 트렌치 배치와 유구분포도(항공촬영 북↑)

그리고 트렌치 하부에는 1호 건물지 기단시설(석축)이 확인된다. 현재 기단시설은 2단이 잔존한다. 기단은 완만하게 경사지는 지형에 1단의 기단부를 조성한 후 들어쌓기로 2단이 조성하였다.



사진 2. Tr.1의 전경



사진 3. Tr.1 내 소성유구(와요지)



사진 4. Tr.1의 1호 건물지(기단:석축)



사진 5. Tr.2의 전경



사진 6. Tr.3의 전경



## (2) 트렌치 2(Tr.2)

트렌치는 동헌추정지의 북단 중앙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18m이며, 깊이는 100cm이다. 경작층인 표토층을 제토하자 바로 암반쇄설층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상단에서는 주공처럼 보이는 원형 굴착흔이 확인되는데, 내부 충진된 퇴적토가 아직 부식이 덜 된 상부 표토층인 것으로 보아 경작 중 일부분에 묘목이나 식생에 의한 도목흔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트렌치의 서쪽과 하단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면서 평탄화작업의 흔적이 나타난다. 트렌치 하단에서는 Tr.5의 상단에서 보이는 흑갈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되고 있어 건물지와 관련된 퇴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 (3) 트렌치 3(Tr.3)

트렌치는 동헌추정지 북단 동쪽에 위치한다. 트렌치가 인접한 동쪽에 주민생활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18m이며, 깊이는 35cm이다. 경작층인 표토층을 제토하자 바로 암반쇄설층이 확인되었다.



사진 7. Tr.4의 전경

#### (4) 트렌치 4(Tr.4)

트렌치는 동헌추정지 2열 서쪽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14m이며, 깊이는 150cm이다. 경작층인 표토층을 제토하자 기와편, 자기편, 잡석, 비닐들이 혼재한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교란층 아래로 암갈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되며 흑갈색 사질점토층 아래에서 2호 건물지(기단시설:석축)와 2호 석렬이 확인되었다. 기단시설은 트렌치 5의 기단시설과 연결된다. 그리고 석렬이 끝나는 지점에서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다. 아마도 경작지를 조성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를 평탄화하기 위한 굴삭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8. Tr.4의 2호 건물지(기단시설:석축)와 1호 석렬 전경



사진 9. Tr.4의 2호 건물지(기단시설:석축) 세부 전경



그리고 2호 석렬이 1단이 남아 있는데 석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장축을 가진다. 한편 석렬 주변 퇴적층에서 수골(사슴 하악골 등)들이 확인되었다.

#### (5) 트렌치 5(Tr.5)

트렌치는 동헌추정지 2열 중앙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하여 배치하였다. 규모는 2×14m이며, 깊이는 85cm이다. 경작층인 표토를 제거하자 면사무소 부속시설과 관련이 있는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교란층 아래에서 2호 건물지 기단시설(석축) 및 2·3호 석렬이 확인되었다. 2호 건물지 기단시설은 트렌치 4와 직선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시설의 장축을 염두해 두고 건물지의 배향을 추정해 보면 동헌지가 자리한 중심 구릉의 장축방향과 달리 우수영 앞 바다에 자리한 양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조망권은 양도의 양쪽으로 해수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매우 좋은 시야각을 가지게 한다. 한편 1호 건물지 기단시설과 2호 건물지 기단시설은 모두 같은 장축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간격은 약 10m 가량 이격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건물지는 경사면을 따라 1자열의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트렌치 남쪽부위에서는 남북방향으로 2호 석렬과 동서방향의 장축을 가진 3호 석렬이 자리한다. 그리고 석렬 주변에서는 기와편, 전돌편, 자기편 등이 뒤섞여 공반되고 있어 건물지 훼손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10. Tr.5의 2호 건물지(기단:석축)과 2·3호 석렬



사진 11. Tr.5의 전경(북동→)



사진 12. Tr.5의 2·3호 석열



사진 13. Tr.5 내 2호 건물지(기단시설:석축)

## 2) 객사지의 조사내용

객사지는 12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트렌치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트렌치 6(Tr.6)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부속시설 왼쪽에 위치한다. 장축방향은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북동-남서방향으로 하였다. 규모는 2×5m이며, 깊이는 1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건물 기반인 시멘트 아래로 교란층과 정화통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2) 트렌치 7(Tr.7)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부속시설 앞 화단에 위치한다. 지형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5m이며, 깊이는 2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표토층 아래로 암반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3) 트렌치 8(Tr.8)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본관 뒤 변전기 앞 나대지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10m이며, 깊이는 7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교란층 밑으로 암반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14. Tr.7의 전경



사진 15. Tr.10의 전경

#### (4) 트렌치 9(Tr.9)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본관 서쪽 옆 인도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북동-남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8m이며, 깊이는 210cm이다. 시멘트포장을 제거하자 근래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이 혼입된 교란층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내부에서는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5) 트렌치 10(Tr.10)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목재로 된 복합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던 곳으로 Tr. 7의 하단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0m이며, 깊이는 4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표토층 아래로 암반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6) 트렌치 11(Tr.11)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주차장이 있던 곳으로 Tr. 10의 하단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0m이며, 깊이는 40cm이다.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자 구지표층 아래로 암반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16. Tr.11의 전경



사진 17. Tr.13의 전경

(7) 트렌치 12(Tr.12)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본관 뒤편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0m이며, 깊이는 20cm이다.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자 구지표층 아래로 암반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8) 트렌치 13(Tr.13)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후문에 인접한 평지에 위치한다.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8m이며, 깊이는 6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구지표층 교란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시멘트 블록과 플라스틱 하

수관이 확인된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9) 트렌치 14(Tr.14)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후문에 인접한 평지에 위치한다. 지형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2m이며, 깊이는 6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구지표층 교란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시멘트 블록과 콘크리트 하수관이 확인된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18. Tr.15의 전경



사진 19. Tr.17의 전경

#### (10) 트렌치 15(Tr.15)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후문에 자리한 표지석 주변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0m이며, 깊이는 9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구지표층 교란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근래에 사용된 시멘트 블록 및 자갈돌들이 확인된다. 아마도 과거 화단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11) 트렌치 16(Tr.16)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후문에 인접한 표지석 주변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0m이며, 깊이는 14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구지표층 교란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근래에 사용된 시멘트 블록 및 자갈돌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화단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12) 트렌치 17(Tr.17)

트렌치는 舊우수영초등학교 후문에 인접한 표지석 주변에 위치한다.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방향을 장축으로 배치하였다. 규모는 2.5×10m이며, 깊이는 100cm이다. 표토를 제거하자 구지표층 교란층이 확인되고 있으며, 근래에 사용된 시멘트 블록 및 자갈돌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과거 화단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20. 학교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치석된 석재



사진 21. 학교의 화단이나 주변 가옥의 기반부에 활용되고 있는 치석된 석재

한편 객사지가 자리한 舊우수영초등학교에는 곳곳에 치석이 이루어진 건물석자재가 확인된다. 현재 계단이나 화단의 가장자리, 조경석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과거 객사의 건물자재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조사지역이 아니지만 주변의 가옥에서도 기반부의 석재가 확인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문으로 진입하는 도로 동편에는 정교하게 치석이 이루어진 4개의 판석을 이용하여 우물

을 조성하고 있다. 지금은 이용되지 않지만 과거 오래전부터 활용되었다는 전언에 의거하면 우수영진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22. 舊 우수영 초등학교 교문 진입로 동편에 자리한 우물 전경

이처럼 객사지에 대한 트렌치 조사에서는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 석재부자재와 우물, 주민들의 전언 등 염두해 두면 과거 우수영진과 관련된 건축물(객사)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좀더 확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IV. 조사결과 및 조사단의견

금번 조사는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 부지내 문화재(객사 및 동헌 추정지) 시굴조사이다. 조사면적은 8,736㎡이다. 조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제 2018-1068호)를 받아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조사 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6년 9월 30일에 사적 제535호로 지정된 해남 전라우수영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객사지와 동헌지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유적의 성격을 밝혀 향후 사적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굴조사는 동헌지 및 객사지 2개 지역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동헌지는 5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였고, 객사지는 12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총 17개 트렌치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굴조사 결과 동헌지에서 1호·2호건물지 기단시설, 1호·2호·3호 석렬, 소성유구(와요지) 등 총 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헌 추정지역은 경작지로 활용되면서 경사면에 대한 개간 및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훼손된 지형이 확인되었지만, 경사 하단부에 자리한 지점에서 양도를 직접 조망하고 있는 건물지 기단시설(석축) 2기가 확인되었다. 기단시설은 구릉의 장축방향과 달리 북서-남동방향이고, 동일한 장축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단시설은 일부 훼손되었지만 1호 건물지의 기단시설을 참고하면 원지형을 L자형으로 삭토하여 지반을 조정한 이후에 30cm 이상의 대형자갈로 1단을 쌓아 기단을 만들고 위로 약 20cm 가량을 뒤로 물린 다음에 2단의 형성하였다. 석재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상이 있는 건축물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건물지의 기단시설은 약 10m가량 이격되어 있는 점에서 상부의 건축물은 1자형 건물이 계단상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트렌치 4·5에서 석렬이 3기가 확인되었다. 석렬은 건물지 기단시설을 직교하거나 평행하고 있다. 아마도 공간을 분할하거나 건물의 시설이 잔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렌치 1에서는 와요지로 추정되는 소성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경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훼손되고 바닥부위만 잔존한 상태이다. 이상의 동헌지에 대한 조사는 단편적인 시굴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동헌 또는 내아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과거 전라우수영진과 관련된 건물지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객사 추정지역에서는 트렌치 12개를 배치하여 조사하였으나 표토에서 기와편, 자기편이 확인되나 객사와 관련된 건물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도 토층

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시설물 설치 등의 요인에 의해 원지형이 삭평 및 훼손되면서 건물지도 함께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객사지에 대한 트렌치 조사결과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지역의 학교 계단과 화단, 조경석, 주변의 우물 등이 기존 건물의 부자재로 재활용되고 있는 점에서 좀더 확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9월 14일과 15일 2일간에 걸쳐 자문 및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 결과 6가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조사지역은 전라우수영의 중심부 주요시설이 있던 지역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굴조사지역은 유구가 확인되므로 문화재(사적)구역을 확대해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조사는 시굴조사이므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사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정한 조사기관의 연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관련기관과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 여섯째, 원문성도 사적이므로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조사결과 자문의견을 정리하면 이번 시굴조사를 통해 전라우수영의 동헌(또는 내아)과 관련된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1호·2호건물지 기반시설, 1호·2호·3호 석렬, 소성유구(와요지) 등 총 6기의 유구이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관계기관에 협조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해남 우수영성 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전라우수영의 관리 및 복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출토유물 현황

### 1. 출토유물 목록

####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고
1. 금속		.	
2. 옥석유리	.	.	
3. 토도	전편, 기와편, 자기편	8	
4. 골각	수골하악골	1	
5. 목죽초칠	.	.	
6. 기타	.	.	
계		9점	

####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01	전편	1	도토	조선	28	25	5.5	01	
02	암기와편	1	도토	조선	25	19	3.2	02	
03	수기와편	1	도토	조선	34	17	2.5	03	
04	수기와편	1	도토	조선	18	17	2.5	04	
05	백자접시편	1	도토	조선	2.7	14	4.3	05	
06	백자대접편	1	도토	조선	6.3	15	5.0	06	
07	백자대접편	1	도토	조선	6.7	13.5	6.1	07	
08	백자잔편	1	도토	조선	3.9	7.7	4.1	08	
09	수골하악골	1	골각	조선	10.3	20	1.5	09	
소 계			9점						



## 2. 출토유물



01



02



03



04



05



06



07



08



09

# 調查報告書 抄錄

보고서명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내 문화재(객사·동헌지)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발행일	2018년 10월 05일	
발행기관	명칭	재단법인 고대문화재연구원(古代文化財研究院)			
	주소	전남 화순군 한천면 죽현로 514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168 KL빌딩 3층			
	전화	062-413-3700	팩스	062-413-3730	
조사연유	학술 조사		조사유형	시굴조사	
현장조사자	김승근, 윤정국, 이승현, 민혜영				
집필 편집자	김승근, 윤정국, 이승현				
유적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620-1번지 일원				
허가번호	제2018-1068호	허가명	해남 전라우수영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조사면적	8,736㎡	조사기간	2018.09.05.~2018.09.21. (실조사일수 : 8일)		
유구종별		시대	기수	중요유물	특기사항
건물지(기단시설:석축)		조선	2		
석렬		조선	3		
소성유구(와요지)		조선	1		
합계			6		



재단법인  
**고대문화재연구원**  
Ancient Institute of Heritage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168 행암동 705번지 K1빌딩 3층

Tel\_ 062.413.3700 Fax\_ 062.413.3730

Homepage\_ [www.godae.co.kr](http://www.godae.co.kr)